

<성경칼럼 요한복음 아홉번째 :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일까?>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사건에는 허점이 많다. 음행 사건이라면 이 사건에 결코 없어서는 안될 상대 남자는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으니 마땅히 상대인 남자도 그 자리에 이 여인과 함께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 허점을 알고도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언급하며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8:4-5) 약혼한 처녀인 것이 분명하다. (신 22:23) 이 사건에서 가장 허점은 모세 율법에서는 분명히 남자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 22:24) 그런데 지금 그 상대 남자는 없지 않은가? 이런 허점과 모순을 요한이 모를리가 없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또한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요한은 이 이여인에 관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윤리적인 생각과 남자를 빼돌린 편향적인 삶의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독선을 지적한다. 과연 누가 죄가 없을까? 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리 죄의 제목을 걸어 죽이려는 음모를 요한이 모를리가 없다. 이 사건으로인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없는 행동에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번씩이나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적으셨다. (8:6,8)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 성경을 이성의 합리적 사고를 통해 인정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를 반드시 알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코 말씀 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쓰셨는지 꼭 알고 싶다면 내 추측은 이렇다. 예수님께서 첫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그 남자는 어디 갔는

가?’ 었을 거다. (이 추측이 생각만 해도 재미있다)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는 남자들을 향해서 두번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아마도 ‘그 남자가 바로 너냐?’ 라고 했을 것 같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상상과 추측일 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므로 항상 알수 있도록 하셨지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 했기 때문이다.(신 29:29)

우리에게 ‘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떤 죄 인가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어떤 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정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이다. 고의로 지은 죄든지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아니면 완전 범죄든지 허술한 범죄든지 모든 죄는 예수안에서 정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다. (1:14) 그런데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남자는 데려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와 돌로 정죄 하자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8: 21)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가?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결국 헤메다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죄가 범람 할수록 자신들은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 한치의 죄도 범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대의 조그마한 죄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으려는 모순된 자들의 삶을 우리는 두려워 해야 한다. 가장 슬픈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남자는 어디 갔는가?’ '바로 그 남자가 너냐?' 라고 내 가슴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실때.. 만약 당신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면 그들처럼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지는 말아야

한다. 음행의 죄를 범했지만 정죄 받지 않은 이 여인처럼 그분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사악하고 메말라 버린 내 양심을 쳐대며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아멘..!